광주변호사들 '낮은 곳' 향한 서비스

오는 5월부터 광주·전남지역에서 경제적 능력을 상실, 과중한 빚에 시달리는 채무자를 돕기 위한 전문적인 개인회생·파산지원 서비스가 제공된다.

광주지방변호사회(회장 국중돈)는 18일 "개인파산·회생 사건을 저렴한 비용으로 전담 처리할 '개인파산·회생 지원변호사단'제도를 오는 5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파산 신청 40만원·개인회생 60만원
수임료 5배 낮춰 받아 5월부터 활동

변호사회는 소속 변호인 212명 가운데 희망자 70~80명으로 변호인단을 구성해 실무교육을 한 뒤 순번제로 법률지원을 맡길 예정이다.

변호사회는 개인회생 60만 원, 개인파산은 40만 원으로 선임료를 각각 책정했다. 이에 따라 5월부터는 현재(150만원~300만원)보다 많게는 5배나 싼 값에 개인파산·회생 법률 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인지대·송달료·공고료 등의 절차 비용은 본인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채무액과 채권자 수·사건 난이도 등에 따라 지원운영단의 승인을 받아 일정액 범위 내에서 증액된다.

변호사회는 이 제도의 시행으로 변호인단이 서류 작성에서 법정 대리출석까지 도맡아 하기 때문에 소송절차에 부담을 느끼는 소비자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최근 2년 사이 개인회생·파산 신청이 급증하면서 불거진 전문브로커 양산, 수임료 인상, 과당경쟁 등 부작용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변호사회는 2천만 원 이하 소액사건도 건당 수임료를 50만 원으로 책정해 지원하는 '소액사건 지원변호인단'도 구성해 운영한다. 변호사회는 사건 난이도에 따라 수임료가 증액되지만 원칙적으로 총액이 100만 원을 넘지 않게 할 방침이다.

국중돈 회장은 "과도한 빚에 눌려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 힘든 채무자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co.kr

개인 파산·회생 변호 이용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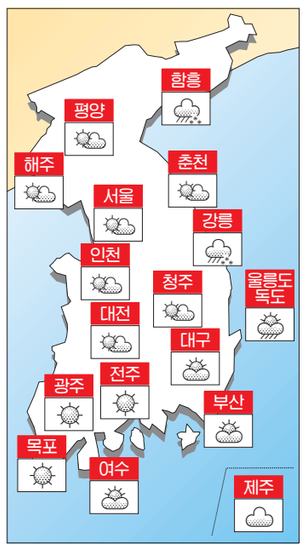
◎광주지방 변호사회 사무국(227-4004)에 문의
↓
◎이용 신청서 접수
(주민등록 초본·부채내역표 지참)
↓
◎지원변호사와 면담 후 절차 진행
(변호사 보수 지급)

봄·봄·봄

오후 한 때 구름이 많이 끼겠다.

3월 19일 (음 2월 1일) ◇전국날씨

광 주	구름조금	2~15℃
목 포	구름조금	3~13℃
여 수	구름많음	5~11℃
완 도	구름많음	3~15℃
구 례	구름많음	2~16℃
해 남	구름많음	1~15℃
장 흥	구름많음	1~15℃
고 흥	구름많음	1~13℃
순 천	구름많음	1~16℃
영 광	구름조금	1~13℃
진 도	구름많음	1~14℃
전 주	구름조금	1~14℃
남 원	구름많음	0~14℃
정 읍	구름조금	1~13℃



서해남부
앞바다=북동~남동풍 파고 1.0~1.5m
먼바다=북동~남동풍 파고 1.0~2.0m
남해서부
앞바다=북동~남동풍 파고 1.0~1.5m
먼바다=북동~남동풍 파고 1.0~1.5

목 포 밀물 02:06 14:34 썰물 07:30 19:54
여 수 밀물 09:24 21:41 썰물 03:02 15:26

▲해뜸 06:39 ▲해짐 18:43 ▲달뜸 06:33 ▲달짐 19:00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20(화)	21(수)	22(목)	23(금)	24(토)	25(일)
날 씨						
최저/최고	3/16	3/16	3/16	6/17	9/14	8/14

"미성년자 성폭행 실패 피의자 형법 조항 없어도 미수죄 처벌"

대법원 판결

미성년자를 성폭행하려다 실패한 피의자에게 형법에 미성년자 성폭행 미수와 관련된 조항이 따로 없더라도 일반 성폭행 미수죄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학원을 마치고 귀가하는 초등학교 여학생을 성폭행 하려다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에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학원버스 운전사 A(3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미성년자 성폭행과 관련된 형법 305조는 '13세 미만의 부녀를 간음하거나 13세 미만의 사람에게 추행을 한 자는 297조(강간), 298조(강제추행), 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301조의 2(강간 등 살인·치사)의 예에 의한다'고만 돼 있을 뿐 '미수범은 처벌한다'는 300조를 인용하지는 않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300조를 명시적으로 인용하지 않고 있지만 미성년자 성폭행 처벌 조항의 입법 취지는 미수범에 관해서도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의 예를 따른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형벌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되어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유추 해석해서는 안되지만 법률 문언의 통상적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한 입법취지·목적·입법 연혁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해석할 수 있다"는 200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인용했다.

/연합뉴스

한국유학 동서교류 세미나 조선시대 호남과 영남 유학을 각각 대표하는 고봉 기대승 선생과 퇴계 이황 선생의 활발한 학문교류를 조명하기 위한 '한국유학 동서교류 학술 세미나'가 18일 전국 유림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 광산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렸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내년 대입 정원 29% 내신 위주 선발

대교협, 198개대 분석…주요 사립대 수능 비중 높아

전국 대학이 2008학년도 입시에서 정원의 28.94%를 고교 내신 성적 위주로 선발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로 뽑는 인원은 5.94%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전국 198개 대학의 2008학년도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분석한 결과 모집인원 34만3천694명 중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 위주로 선발되는 인원은 9만9천458명으로 전체 정원의 28.94%를 차지했다.

학생부 위주란 고교 내신성적을 100% 또는 80% 이상 반영해 대학 신입생을 선발하는 것으로, 학교성적이 우수하다면 수능이나 논술 성적 등에 구애받지 않고 원하는 대학에 무난하게 합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학입시 전형 요소 가운데 학생부 비율이 수능이나 논술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이른바 '학생부+기타'방식에 의해 선발되는 인원은 7만3천20명으로 전국 모집 정원의 21.25%로 집계됐다.

반면 수능을 100% 또는 80% 이상 반영하는 이른바 수능 위주로 선발되는 인원은 전체 신입생의 5.94%인 2만418명이고, 학생부·수능·논술을 골고루 반영해 뽑는 인원은 2만8천440(8.27%)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고려대 31%(1천199명), 서강대 12%(201명), 성균관대 24.2%(870명), 연세대 16.8%(586명), 이화여대 22.3%(711명), 중앙대 24.7%(663명), 한양대 30.6%(948명) 등 서울 주요 사립대학의 수능 위주 선발 비율은 전국 평균치보다 다소 높았다.

서울대는 학생부 위주와 학생부+기타 방식의 선발 비율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각각 25.3%와 21.6%였고 학생부+수능+논술은 53.1%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고려대와 서강대 등 서울 주요 사립대학에 입학하려면 수능 성적에 상대적으로 많은 힘을 쏟아야 하고, 서울대 지망생들은 내신·수능·논술 등의 실력을 두루 갖춰야 하지만 그 밖의 대학들에는 고교 성적이 우수하면 쉽게 합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양심적 병역 거부 11명 유엔에 진정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가 지난해 말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 복역한 20대 남성 2명을 구제하라고 우리 정부에 권고한 가운데 국내 '양심적 병역거부자 1호'인 오태양씨 등 11명이 같은 내용의 진정을 유엔에 내기로 했다.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최정민 공동집행위원장은 18일 "오태양씨를 비롯한 병역거부 복역자 11명이 한국정부의 형사 처벌이 시민적·정치적 권리 규약 제18조가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에 위반한다며 진정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유엔 위원회에서 구제 권고를 받은 2명은 여호와의 증인들로 순전히 종교적 이유에 따른 병역 거부였지만 추가로 진정을 낼 오씨 등은 종교와 무관한 병역 거부자들이어서 유엔의 심의 결과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 북부서 '이색 인사'

동료들로 인사위 구성 전국 첫 직위공모 심의

광주 북부경찰서가 전국 일선 경찰서 중 처음으로 직위공모제를 도입하고 경감급 이하 중·하위직으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해 적임자를 선발했다.

북부경찰은 지난 16일 순경부터 경위까지 20명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를 열어 경무계, 정보계, 유치장 등 10개 직위에 공모한 20여명을 대상으로 심의를 벌여 적임자 10명을 서장에게 추천했다.

대부분의 공모 직위는 계급에 관계없이 지원을 받았으며, 직위별로 1~3명이 몰렸다. 수사경과 등 전문부서는 인사위원회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인사위원은 6개 지구대를 포함한 15개 부서별로 2명씩을 추천받아 30명의 예비 인사위원을 정해 제비 뽑기 형식으로 20명을 뽑아 구성했다. 이 중에는 순경 1명, 경장 2명, 경사 6명 하위 직급 경찰도 절반 가까이 포함됐다.

공모에 나선 후보자들은 이날 동료인 인사위원들 앞에서 자신의 소견을 발표하고 앞으로 근무계획과 인사의 당위성 등을 설명했다. 인사위원회는 지원자에 대한 소견 발표와 상훈, 근무평가, 경력, 자격증 여부 등을 근거로 무기명 투표, 득표순으로 희망 부서에 배치했다.

경감급 이상으로 구성됐던 기존의 인사위원회 회의 시간이 1시간 남짓이었던 것에 비해, 이번 인사위원회는 지원자들 개개인을 다루느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4시간 이상 걸렸다.

인사위원회에 참여했던 한 직원(경장)은 "인사는 나와 상관없는 일로 여겼지만, 내 손으로 인사를 결정한다는 생각에 책임감과 성취감을 느꼈다"며 "경찰서장의 고유 권한인 인사권이 직원들에게 넘어왔다는 것과 함께 운영방식의 투명성도 만족스러웠다"고 말했다.

제도를 도입한 윤재문 북부경찰서장은 "어떤 직원이 어떤 부서에서 일하는 것이 적합한지는 동료가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떨어진 직원들도 결과에 만족할 것"이라며 "직원들 간 인기주의가 팽배할 수 있는 단점은 제도 정착과 함께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